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2024.2.21. 14:30  
금융결제원 6층 회의실

# 모두 말씀

2024. 2. 2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 핀테크 기업,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담회 발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NH, 기업 (유관기관) 감독원, 결제원, 신정원  
(핀테크)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나이스페이먼츠, 당근페이

## II.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

---

그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비자에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픈뱅킹('19.12월)과 마이데이터('22.1월)의 도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① 먼저,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사업모델 구축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총 57개의 금융회사와 79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약 3,564만명의 가입자(순가입자 기준)가 하루 평균 약 1조 7000억원의 자금을 거래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23년 기준)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해 세계최초로 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누적 1억 1,400만명의 가입자가('24.1월 기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되면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시대에 금융 산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받고, 결제와 자산이동까지 가능한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Ⅲ.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

---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①** 금융서비스 이용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픈뱅킹은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제망 개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장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②**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손쉽게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정보의 범위를 넓혀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수수료와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 TF회의, 협회를 통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여러분께서도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IV.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

---

우선,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❶ 개인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이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역 같은 계좌정보를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원스톱 법인자금관리와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❷ 또한, 모바일과 웹페이지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이용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은행의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의 금융업무까지 처리가 가능해져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업점 수 추이(단위: 개): ('19년) 6,709 → ('20년) 6,405 → ('21년) 6,094 → ('22년) 5,800

또한,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오픈뱅킹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V. 맺음말씀

---

참석자 여러분,

금일 간담회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과 국내 발전방향을  
소개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사례가  
우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